

영유아 사교육경감 '전문가에게 묻고 듣다' #1

안녕하세요! 교수님.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승하라고 합니다.



i-누리 포털의 사교육 경감관련 학부모 연수를 듣고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영유아 사교육경감에 대해 학부모님들께 연구 데이터에 기반하여 알려드리고자 연구와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기 사교육에 대한 우려가 계속 되는데도 학부모들께서 유아기의 자녀에게도 지식 중심의 학습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 직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 계층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어려서부터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시켜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지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부모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아이를 놀게 놔두는 것은 이상한 것, 뭔가 시간을 뺏박하게 보내야 유익하다는 생각을 당연히 여기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불안감은 '일찍 시작할수록 아이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결국 한 살배기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영유아 사교육 열풍은 불안정한 미래, 계층 이동 통로가 좁아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인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모여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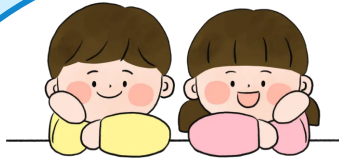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러한 영유아 사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장기적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투입된 비용에 대비하면 더욱 그 효과가 의심스럽고요. 가장 많은 부모가 관심을 두는 영어 사교육의 경우, 발음이나 듣기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어릴 때 배우면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언어 능력은 사교육 그 자체보다 **가정에서의 생활 환경, 부모의 관심과 상호작용**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습니다.





영유아 사교육경감 '전문가에게 묻고 듣다' #1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영유아기 아이들의 뇌가 아직 학습 사교육이 요구하는 방식의 사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은 이 시기 아이들은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신경회로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 대부분은 이해가 아니라 단순 암기에 그칩니다. 수학적 사고는 본래 전두엽과 두정엽이 발달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미분 문제를 푸는 경우 아이들이 그 원리를 이해했다기 보다는 그 공식을 외워서 그대로 쓰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죠. 전두엽·두정엽을 쓰기보다 기억을 담당하는 측두엽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은 수학적 사고력이 발달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어유치원에서 만 1세부터 한글과 알파벳을 줄줄 읽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천재 같지만, 실제로는 또래와 소통하는 능력이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경우가 임상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영유아기 학습 사교육은 보여지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부모는 가시적인 결과를 보며 안심하지만, 정작 그 시기에 자라야 할 사고력은 발달하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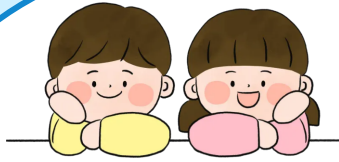
그럼 이런 과도한 영유아 학습 사교육이 유아 발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큰 부작용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와 직결하는데요. 배움에 대한 흥미는 스스로 새로운 것을 깨달아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데, 학습 사교육은 답이 정해져 있어서 자유로운 탐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식 위주의 교육이기에 미리 해결 방법을 다 알려주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배움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 자체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또한 영유아기에는 격지 말아야 할 시험체제, 소위 ‘레벨테스트’를 보게 되고 이와 관련한 긴장과 실패를 너무 자주 겪게 됩니다. 실패 후 스스로 느끼는 좌절감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부모의 실망까지 마주하게 되면 아이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실제로 영유아기 아이들에게서 우울증, 강박증과 같은 불안장애, 스트레스로 인한 틱 장애, 심한 경우 탈모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학습 사교육이 혹시 유아의 뇌발달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영유아 사교육경감 '전문가에게 묻고 듣다' #1



유아기 뇌는 다양한 경험과 놀이,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발달합니다. 특히 4~7세는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인데, 이 전두엽이 바로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참으며 끈기 있게 해내는 '자기조절 능력'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이 자기조절 능력이야말로 진짜 '공부하는 뇌'의 토대가 되는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조절 능력은 학습지나 학원에서 길러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놀이,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 자유로운 신체 활동 속에서 자랍니다. 이 시기에 무리한 학습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정작 자라야 할 전두엽은 자극받지 못하고 단순 암기를 담당하는 측두엽만 과도하게 쓰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발달해야 할 영역은 자라지 못하고, 부적절한 영역만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는 발달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부모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선택한 사교육이, 오히려 진짜 공부하는 뇌의 발달을 가로막는 역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아의 뇌 발달 외에 사회성 발달에도 미치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학습에 시간을 쏟는 만큼 또래와 상호작용할 시간, 부모와 정서적으로 교감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한글과 영어는 뛰어나지만 친구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 기관에 적응하지 못하고 등원을 거부하는 아이의 사례가 유아교육 현장에서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교사들은 한글, 영어, 수는 다 알고 문제까지 푸는데, 친구와 공통점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갈등이 생겼을 때 조율하는 능력이 평균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달심리학자인 Hartup의 오랜 연구에 따르면, 성인기의 성공적 삶 및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은 IQ, 학교성적이 아니라 어린 시기에 다른 아이들과 원만히 잘 지내는 정도였습니다. 유아기에는 또래들과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평생의 사회성을 위한 토대를 탄탄히 만드는 시기인데, 그러한 경험을 못한 채, 인지적 발달에만 치중하게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서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부작용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영유아기에는 잘 적응한 듯 보이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쟁의 압박과 실패에 대한 좌절감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으로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아들은 자신의 고통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의 영유아기 학습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구조와 원인,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방법과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인터뷰도 추후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발달을 위한 교육 방법에 관심을 갖고 인터뷰를 지켜봐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인터뷰로 뵈겠습니다.

